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 FAMILY DAY



<다시 예수의 길로>





# 목차

## Contents



10·11·12월호 소개 - 다시 예수의 길로	04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6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7

###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b>1주</b>	10.02 ~ 10.08	주님이 주셨습니다	10
<b>2주</b>	10.09 ~ 10.15	모든 민족을 제자로!	12
<b>3주</b>	10.16 ~ 10.22	첫 인류가 받은 축복	14
<b>4주</b>	10.23 ~ 10.29	예수님을 만나다	16
<b>5주</b>	10.30 ~ 11.05	예수님의 종교개혁	18
<b>6주</b>	11.06 ~ 11.12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요	24
<b>7주</b>	11.13 ~ 11.19	교회의 반석	26
<b>8주</b>	11.20 ~ 11.26	감사의 신비	28
<b>9주</b>	11.27 ~ 12.03	예수신 줄을 알고	30
<b>10주</b>	12.04 ~ 12.10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	36
<b>11주</b>	12.11 ~ 12.17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	38
<b>12주</b>	12.18 ~ 12.24	다른 길로 가게 하시다	40
<b>13주</b>	12.25 ~ 12.31	성탄의 기쁨	42

# 다시 예수의 길로

## 10-12월호를 시작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 #1. 아이러니한 친구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라’ (눅 23:12)

헤롯왕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 당시 유대지역을 다스리는 주요한 두 정치인이었습니다. 헤롯은 북쪽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빌라도는 유대지역을 관할하도록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적대감을 품을 정도로 좋지 않은 관계 또는 갈등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잡아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되어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평소 적대적이고 갈등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서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상한, 아이러니한 친구 맷기입니다.

### #2. 불편한 아이러니

오늘 세상에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다양한 인생길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다 보니 서로 다른 인생길들은 종종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한 편에서는 다양성을 격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길들 사이에 경쟁과 각축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화된 세속 세계 안에 점점 자라나고 있는 일종의 공통점 또는 획일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신앙적 삶은 그 다양함 중의 하나로도 인정받지 못한 체 일터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공적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불편한 아이러니입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었던 옛적 세계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 #3 . 변증과 변명 사이에서

변증과 변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잘 전달하고 보여주고자 시대마다 숭고한 노력을 기울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됨이요 기독교 복음의 변증

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교회는 세상적인 지지와 영향력과 힘을 얻고 또 향유하고자, 세상의 눈에 맞춘 변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만 넘치는 변명이 많을 때 교회는 쇠락해 갔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은 채 말만 많이 하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 #4. 설득에서 진정성으로

진정성이 없이 그저 말로만 세상을 설득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그 길이 더 없어질지 모릅니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진정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예수님의 길을 가기 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오이코스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작지만 소중한 그 말씀의 길을 가고 또 가고, 멈추었다가도 또 시작하여 나아가는 진정성을 연습합시다. 다음세대를 설득하려 하기 보다는 가정에서부터 함께 걷는 매일의 작은 진정성 연습이 우리 가정 안에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 #5. 발자국이 길이 되기를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가는 오늘의 작은 발걸음은 금세 지워질 듯하지만, 오늘 내일 다시 또 다시 걷다 보면 결국 그 발자국은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 분 때문에 걷는 작은 발걸음들이 우리 가정에 새로운 길, 세상과 다른 길,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6. 다시 예수의 길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한 설득 이전에 우리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한 가정에서 온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예수의 길로” 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한 해의 끝에서 다시 예수의 길로 서는 성탄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http://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민수기 12:3

##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 10

## NOV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개천절

9

10

11

12

13

14

15

한글날

대체 휴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종교개혁주일

# 이달의 찬양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2. 내 힘만의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 다 힘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 를 삼키려 하나 겁

5 환난에 서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다 엿  
있는 장수나와 서날대신하여 싸우네이  
내지 말고 셨거라 진리로 이기리로 다 친

9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  
장수누군가 주예수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다 당  
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도 진

15 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할자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다  
리 는 살아서 그나라 영원하리라

10/2-8

1주 가정예배

# 주님이 주셨습니다

## 마태복음 26:26-27



이 달의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1P



### 말씀 읽기 - 마태복음 26:26-27

-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 생각하기

- Q1.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 Q2. 예수님이 잡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것인가요?



## 말씀듣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제자들이 먹은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기 실 살과 흘리실 피를 의미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감사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9-15  
2주 가정예배

# 모든 민족을 제자로!

## 마태복음 28:19-20



이 달의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1P



### 말씀 읽기 - 마태복음 28:19-20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생각하기

- Q1.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나요? 그 때의 경험을 나누어보세요.
- Q2. 주변 친구와 이웃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나요? 어떻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나눠보세요.



### 말씀듣기

예수님이 불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 것이란 두려움과 무서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죄책감에 빠져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잘 아시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 수 있도록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 죄책감에 무너져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에 초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만나러 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전하며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 기도

우리 삶에 먼저 찾아와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삶과 행동에 예수님의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서 부단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어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16-22

3주 가정예배

# 첫 인류가 받은 축복

## 창세기 1:27-28



이 달의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1P



### 말씀읽기 - 창세기 1:27-28

- 27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8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생각하기

- Q1.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까요?
- Q2.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 우리 가정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 말씀듣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훼손하며 착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연을 도구로 여기고 자연 위에 군림하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꾸셨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 사랑으로 자연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 스스로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학대한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생태계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자연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사랑으로 돌보게 해주세요. 사람의 끝없는 욕망으로 무수히 불타버린 숲과 무수히 도살당한 동물들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게 해주세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23-29

4주 가정예배

# 예수님을 만나다

누가복음 19:5-7



이 달의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1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9:5-7

- 0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 0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 07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 생각하기

- Q1.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나요?
- Q2.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 말씀듣기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제국을 따르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체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에 띠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삭개오를 직업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을 간절히 찾는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사랑하시며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을 봅니다. 저희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혹시 저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30-11/5  
5주 가정예배

# 예수님의 종교개혁

## 마가복음 11:15-18



이 달의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1P



### 말씀 읽기 - 마가복음 11:15-18

-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 생각하기

Q1.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을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Q2. 내 삶에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모습이 있나요?



## 말씀듣기

‘종교개혁’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 중세 가톨릭교회가 부정부패하여 타락한 모습을 보이자, 뜻 있는 사람들이 이를 바로잡아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했던 운동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는 종교개혁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보인 것은 시장통과 같이 변해버린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화폐로만 세금과 현금을 내야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흄 없는 제물을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고팔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돈이 오가게 되며,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곳이 아닌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이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참지 않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이 더 이상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 삶에서도 살아 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지는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 하시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  
5

11

12

# 메모 MEMO



# 11

# OCTO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추수감사주일

27

28

29

30

대림절 1주

# 이달의 찬양

## 감사송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F G B♭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6 C F G

그러므로 감사      그럴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12 B♭ Csus4 F F7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17 B♭ C7 Am7 Dm7

감사      그리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Gm7 C7 F F7

감사      이래도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25 B♭ C7 Am7 Dm7 Gm7

감사      향상—감사      쉬지말고 감사

30 C7 F B♭/F F B♭/C D.S. al Coda F Dm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34 Gm7 C7 F Dm7 Gm7 C7 FM7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

11 / 6 - 12  
1주 가정예배

#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요

## 례위기 19:9-10



이 달의 찬양 <감사송> 25p



말씀 읽기 - 레위기 19:9-10

- 0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생각하기

- Q1. 같은 반 친구 중에 어려운 환경이나 가정 가운데 있는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Q2.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나요?



## 말씀듣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봄철에 뿐린 씨앗이 뜨거운 여름햇살을 견디고 나면, 농부가 땀 흘린 만큼 귀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결실과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추수할 때, 밭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다 거두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탁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일정 부분, 즉 여유분을 충분히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실제적으로 돋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어 이들에게 넉넉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을 붙여주셨는지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그 이웃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우리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주세요. 주변을 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13-19  
2주 가정예배

# 교회의 반석

## 마태복음 16:16-18



이 달의 찬양 <감사송> 25p



### 말씀 읽기 - 마태복음 16:16-18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생각하기

Q1.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나요?

Q2.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 말씀듣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단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열한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만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 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나 대단한 사람에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 이십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이시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사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 올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바르게 하며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

11

2

12

11/20-26

3주 가정예배

# 감사의 신비

시편 100:3-5



이 달의 찬양 <감사송> 25p



## 말씀읽기 – 시편 100:3-5

- 0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0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0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 생각하기

Q1.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Q2. 현재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 말씀듣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사고백을 드립니다. 올 한해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사한 일이 선뜻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모든 일이 감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시 100:1 온 땅 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양을 돌보듯,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 슬픈 일과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복음을 기억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

11

3

12

11/27-12/3

4주 가정예배

# 예수신 줄을 알고 마가복음 6:53-56



이달의 찬양 <감사讃> 25p



## 말씀읽기 – 마가복음 6:53-56

- 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 56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 생각하기

Q1. 나와 우리 가정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나요?

Q2.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 말씀듣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마 4:23.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 예수님은 유대만이 아니라 이방(사마리아, 두로, 시돈 등)도 가리지 않으시고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진리를 들었고, 깨달았으며,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 나병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나사로 등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곳곳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건너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세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님이시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게 했던 분이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신 분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듣자마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이렇게 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

11

4

12

# 메모 MEMO



# 12

## DEC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9

10

대림절 2주

11

12

13

14

15

16

17

대림절 3주

18

19

20

21

22

23

24

대림절 4주

25

26

27

28

29

30

성탄절

# 이달의 찬양

## 천사들의 노래가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F C F F C7 F  
 1.천 사 들 의 노 래 가 하 늘 에 서 들 리 니  
 2.한 밤 중 애 목 자 들 저 희 양 떼 지 키 때  
 3.베 들 래 험 달 려 가 나 신 아 기 예 수 깨  
 4.구 유 안 애 아 기 깨 천 사 찬 송 하 였 다

5 Dm Dm Am C7 F  
 산 과 들 이 기 빼 서 메 아 리 쳐 울 린 다  
 아 름 다 운 노 래 가 청 아 하 게 들 린 다  
 끓 어 경 배 합 시 다 탄 생 하 신 아 기 깨  
 우 리 들 도 주 님 깨 기 뿐 찬 송 부 르 자

9 F Dm Gm C F B♭ C  
 영 — — — 광-을

13 F F C C Dm Gm C  
 높 이 계 신 주 깨 영 —

17 F B♭ C F F C7 F B♭ F  
 — — 광 을 높 이 계 신 주 님 깨 아 멘

12/4-10  
1주 가정예배

#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

## 히브리서 13:1-8



이 달의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37P



### 말씀읽기 - 히브리서 13:1-8

- 0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 0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 03 너희도 함께 간힌 것 같이 간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 0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 0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0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돋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 0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 0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생각하기

- Q1. 요즘 예수님과 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0(가까움)부터 10(멀)까지 숫자로 표현해 보고 나눠보세요.
- Q2. 예수님의 우리 가정을 영원히 동일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 말씀듣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는 펁박과 박해, 신앙의 혼란으로 예수님을 떠나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펁박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도 불법인 종교를 믿는다며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 힘들고 혼란스러웠겠지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들을 살피고 보호했듯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나요? 교회가 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의 삶도 점점 바빠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 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란다. 너희가 나를 떠나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단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비판받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나의 삶까지 바빠지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

11

12

1

12/11-17  
2주 가정예배

#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

## 마태복음 2:1-12



이 달의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2:1-12

0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0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0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0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0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0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0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0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0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 생각하기

Q1. 대림절을 보내며 지금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Q2.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다가 크고 반짝이는 별을 발견했어요. 나도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경험이 있나요?



## 말씀듣기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연구하다가 크고 반짝이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려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대와 설렘을 갖고 위대한 왕, 예수님을 뵙기 위해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별을 따라간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크고 반짝이는 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

11

12

2

12/18-24  
3주 가정예배

# 다른 길로 가게 하시다

## 마태복음 2:1-12



이 달의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37P



### 말씀 읽기 - 마태복음 2:1-12

0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0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0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0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0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0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07 이에 헤롯이 기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0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0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다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 생각하기

Q1.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한 경험이 있나요?

Q2.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예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드릴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 말씀듣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헤롯 왕에게 찾아와, 탄생한 유대인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왕실엔 태어난 아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그 아기에게 자신도 경배하고 싶으니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줄도 모른 채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다시 별을 쫓아 간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박사들은 왕인 헤롯의 말을 저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참된 왕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유일하신 왕,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쫓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

11

12

3

12/25-31  
4주 가정예배

# 성탄의 기쁨

## 마태복음 2:9-11



이 달의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37P



### 말씀읽기 - 마태복음 2:9-11

- 0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색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 생각하기

- Q1.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 Q2.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마음으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 말씀듣기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헤롯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인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새로 태어난 왕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박사를 앞에 다시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지요.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어느 곳에 멈추었습니다. 멈춘 곳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아기가 바로 새로 태어난 왕인 것을 알고 무릎 끓어 경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보물인 황금과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모든 이들을 섬기고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리며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

11

12

4

# 메모 MEMO



발행통권 | 34호  
발 행 일 | 2022년 10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백성우, 정천우  
편 집 인 | 양동욱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http://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